

1930년대 항일아나키스트단체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념과 활동

차현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국사학 전공
bestchj05@naver.com

- I. 머리말
 - II.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
 - III.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념
 - IV.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활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일제시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의 ана키즘(anarchism)은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중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은 크로포트킨의 반국가적 사상에 경도되어 있었는데, 다음의 구절을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는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특권계급의 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몇 세기에 걸쳐 정비되어 만들어 내어진 것이다. …… 그러니만큼 ана키스트는 입법자의 역할도 일체의 국가적 활동도 거부한다.¹

아나키즘은 일제시기 민족주의 및 공산주의와는 독립된 제3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² 따라서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나름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연구 가치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 역시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항일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만큼 항일독립운동가들의 각각의 다른 주의(-ism)를 표방했던 독립운동활동의 이면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대하여 다방면적인 고찰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은 국가와 권력체 출범을 반대하는 가운데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한국인 ана키스트들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ана키즘 이론이 어떻게 민족해방운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1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 『現代科學과 ана키즘: ана키즘의 道德』(創文閣, 1973), 108-109쪽.
2 이호룡, 『한국의 ана키즘: 사상편』(지식산업사, 2001), 197쪽.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시기인 1930년대 한국인 아나키스트 단체였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이하: 남화연맹)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언급할 수 있는데 첫째, 남화연맹은 재일본·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집합단체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반적 아나키즘 선전활동에서 나아가 반제국주의 항일독립운동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삼은 단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화연맹은 193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상해에 터를 두고 있었으며, 여러 남화연맹원들이 1930년대부터 해방직전까지 임시정부와 유대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화연맹이 아나키즘에 기초하고 있지만 민족해방운동을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때 일제시기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 비슷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즉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즘에 경도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사상적 기저에는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을 민족주의자로 보는 해석이 주된 경향이였다.³ 그리고 남화연맹에 대해서는 남화연맹 개개인들의 일대기와 활동⁴, 남화연맹의 이념들이 상당부분 분석되어져 있다.⁵ 그러나 남화

-
- 3 장은정, 「신채호의 아나키즘에 투영된 민족 개념」, 『기전문화연구』 제36권(2010); 박걸순,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제54권(2013); 하승우, 「항일운동에서 '구성된' 아나코-코문주의와 아나키즘 해석경향에 대한 재고찰: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7권 제1호(2008);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이학사, 2004); 김명섭 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 연대』(경인문화사, 2015).
 - 4 김명섭,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인식과 항일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7권 제1호(2008); 김영범, 「아나키스트 의열투쟁 범주의 성립과 그 의의: 일제강점기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폭력행동에 대한 재고찰」, 『대구사학』 제115권(2014); 이동연, 「如山 李容俊의 生涯와 抗日獨立鬪爭」, 『국학연구』 제9권(2004); 김희곤, 「아나키스트 嚴舜奉의 항일투쟁」, 『안동사학』 제12권(2007); 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제24권(2010); 이호룡, 「이회영의 아나키스트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권(2009); 박종연, 「일제시기 李康勳의 민족운동과 六三亭

연맹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다는 제한된 해석과 함께 민족주의자들의 항일독립운동과 비교하여 남화연맹원들의 항일독립운동의 특수성과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아쉬움이 있다. 과연 남화연맹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 본령의 사상적용에 충실하였는지, 혹은 변용시켰는지 좀 더 정확한 사상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와 권력을 거부하는 아나키즘을 수용한 그들이 민족주의자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졌으며 항일독립투쟁에 있어 민족주의자들과 어떤 상이한 혹은 유사한 지향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는 남화연맹의 결성과정과 단체의 이념과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좀 더 세분화하여 이야기한다면 남화연맹이 가지고 있는 아나키즘의 성격과 그 이념에 기초한 활동양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있어 남화연맹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남화연맹의 결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20년대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고 결집하여 여러 단체들을 조직했는데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31년 남화연맹 재편성과 이후 부설단체를 조직하기까지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이동경로와 이동원인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남화연맹원들의 남화연맹 가입이전의 민족운동 참여유형과

의거], 『승실사학』 제32권(2014); 황민호, 「일제하 재중 한인 아나키스트 이규창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0권(2014); 김명섭, 「류자명의 항일 의열활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2권(2015); 박찬승, 「1933년 상해 ‘有吉明공사 암살 미수 사건’의 전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0권(2017); 윤장수, 「朴基成(1905-1991)의 생애와 독립운동」,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7).

5 남화연맹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공기택, 「南華韓人青年聯盟의 無政府主義運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박환, 『식민지시대 아나키즘운동사』(선인, 2005).

이전의 아나키스트 활동경력을 살핌으로써 남화연맹이 아나키즘 운동 및 민족해방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결성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당시 남화연맹원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세인 상황에서 어떻게 아나키즘 본령의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적 견해와 이론적 배경, 개인적 경험들을 통해 정확한 상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남화연맹원들이 지향했던 아나키즘 혁명방식과 혁명 이후 도래할 자유연합사회의 모습에 대한 기대로 인해,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떻게 형성했으며 ‘민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표명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셋째, 남화연맹의 항일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화연맹원들의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 시도와 임시정부 등의 민족진영 단체와의 합작·연대활동이 가졌던 특수성이 아나키즘 본령 가운데 어느 방침에 입각하여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 방법으로는 남화연맹원들이 기고한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실린 《남화통신》, 《흑색신문》 등의 기관지와 신문, 일제의 보도자료, 회고록 등을 이용하고자 한다.

II.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결성

남화연맹은 1930년⁶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무정부주의자 단체이다. 우선

6 남화연맹의 결성년도에 대해서는 《흑색신문》은 1929년, 화암 정현섭의 회고록에서는 1931년, 이회영의 아들 이규창의 회고록에도 1931년, 김정주의 『조선통치사료』에서는 1930년이라고 기록하였다. 재일본 아나키스트 기관지 《자유연합신문》 1930년 5월 1일자에는 남화연맹의 강령이 소개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1930년에는 남화연맹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運動概況」, 《흑색신문》 제29호 1934년 6월 3일자;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27

남화연맹의 결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중국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이동경로와 재중국, 재만주, 재일본 한인 아나키스트들의 연합과정을 알아야만 한다. 재중국 한인 아나키스트 단체는 이회영, 신채호가 임시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북경에 정착하여 “북경파”를 결성하면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⁷ 이 때 이회영·신채호와 더불어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유자명이다. 당시 아나키스트 이론가였던 유자명은 이회영·신채호와 친밀한 관계였다.⁸ 그리고 북경대학교 교수이자 러시아 맹인 시인이었던 에로생코(Yakovlevich Eroshenko)를 통해 북경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을규, 이정규, 정현섭 등이 있었다.⁹

신채호, 유자명, 이회영, 이을규, 이정규, 정화암, 백정기는 1924년 북경에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하: 재중무련)을 조직했다. 재중무련의 기관지로는 『정의공보(正義公報)』, 『탈환(奪還)』 등이 발행되었다.¹⁰ 재중무련은 1928년 상해에서 결성된 동방무정부주의자연맹(東方無政府主義者聯盟)에 가맹하였다. 당시 이 단체는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등 극동 각국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면서 국제적 아나키스트 단체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신채호가 작성한 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기관지 『동방(東方)』을 발행했다.¹¹

쪽; 이규창, 『운명의 여신』(클레버, 2004), 225쪽; 김정주, 『조선통치사료』 10(박환(2005), 앞의 책, 119-120쪽에서 재인용); 「南支在在の韓人青年聯盟宣言と綱領を發表」, 《自由聯合新聞》 제47호, 1930년 5월 1일자.

7 구승희, 『한국 아나키즘 100년』(이학사, 2004), 209쪽.

8 유자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95쪽, 99쪽.

9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정현섭은 1923년 북경으로 이동했고, 이정규는 1922년에 아나키즘에 심취했다.(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326-327쪽;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눈빛, 2005), 147쪽).

10 河岐洛, 『奪還』(螢雪出版社, 1994), 36쪽.

한편 만주에서는 아나키스트 김종진이 중국 남방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들을 북만(北滿)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 이을규, 백정기, 오면직, 김성수, 정현섭 등이 북만지역으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그 후 1928년 김종진, 이덕재, 이달, 이봉해, 김야운, 엄형순, 이준근, 저자 등이 재만조선 무정부주의자연맹(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 이하: 재만무련)을 조직하였다. 재만무련연맹원들은 신민부의 후신 격인 한족총연합회 가입도 약속하였다.¹²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과 같은 해 9월 만주사변, 1932년 상해사변 등 일제의 대륙침략과 군대출동 및 간섭이 극심해지면서 만주 등 중국 각 지역과 일본 등에 거주하던 아나키스트들이 상해로 모이기 시작하였다.¹³ 이 때 재만무련은 백 만의 만주 교민들과 지방자치연합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본의 만주침략군에 항전하다가 지하조직 일부를 남기고 상해로 후퇴한 것이었고¹⁴ 국내와 일본에서 활동하던 젊은 아나키스트 박기성, 이하유, 유산방(劉山芳), 일본 아나키즘운동의 중심역할을 하던 원심창도 중국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오면직, 김성수, 이용준, 나월환 등도 중국 각지에서 상해로 옮겼다.¹⁵ 정현섭의 회고에 따르면 중국, 만주, 일본 등 각지에서 아나키스트 동지들이 모여들자 만주사변 발발의 때를

11 河岐洛(1994), 위의 책, 44쪽, 48쪽.

12 이강훈의 회고록에 따르면 시야 김종진이 “신민부 산하에 편입된 지방을 순회하며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김좌진 장군의 처지와 또 암흑에 쌓여있는 북만 민족진영의 실정을 파악하게” 된 후 생각 끝에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만주에서의 결집을 추진하였다고 한다(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도서출판 제삼기획, 1994), 112쪽, 125쪽); 하기락(河岐洛)은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1929년 7월 북만주 해림(海林)에서 조직되었다고 기록했다(河岐洛(1994), 앞의 책, 48쪽).

13 「滿洲事變에 關한 日本政府의 聲明書」, 《동아일보》, 1931년 9월 26일자;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26쪽.

14 河岐洛(1994), 앞의 책, 48쪽.

15 朝鮮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아나키즘運動史』(螢雪出版社, 1978), 340쪽.

맞추어 정현섭이 “이회영, 백정기, 유자명, 유성 등과 협의하여 남화한인청년연맹을 결성하고 산하단체로서 남화구락부(南華俱樂部)를 두어 기관지 《남화통신(南華通訊)》을 발간했다”고 한다.¹⁶¹⁷ 한편 남화연맹의 활동자금은 신현상(申鉉尙)과 최석영(崔錫榮)이 “원대한 포부 하에” 충남호서은행(湖西銀行)에서 거금을 탈취하여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흑색신문》은 전했다.¹⁸ 남화연맹 단원들의 성명과 간략한 인명정보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1-남화연맹 구성원 명단¹⁹

성명	생몰년도	출신지	남화연맹가입 이전 활동지	이전 활동내역	비고
정현섭(鄭賢燮, 鄭華岩)	1896-1981	전북 김제	국내, 중국 북경, 만주	3·1운동, 재중무련, 재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 자연맹(이하: 재공산무련), 한족총연합회(이하: 한총) 등	
유자명(柳子明)	1894-1985	충북 충주	중국 북경, 상해	임시정부(의정원의원), 의열단, 재중무련, 재공 산무련 등	
이회영 (友堂 李會榮)	1867-1932	서울	국내, 중국 북 경, 만주, 상해	경학사, 부민단, 재중무 련, 재공산무련 등	만주 민족해방 운 동기지 건설도모 중 피체, 옥사

- 16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126-127쪽; 김정주의 『조선통치사료』에서는 유기석이 신현상과 함께 상해로 떠난 후 장도선, 정혜리 등과 만나 4월 20일 남화한인청년연맹을 조직하고 선언·강령·규약을 발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金正柱, 『朝鮮統治史料』 10, 한국사료연구소, 1971, 872쪽; 이동언, 『如 山 李容俊의 生涯와 抗日獨立鬪爭』, 『국학연구』 제9권(2004), 114쪽에서 재인용).
- 17 이호룡은 남화연맹은 1930년에 결성되었으며 정현섭, 이회영 등이 남화연맹을 결성했다는 주장은 남화연맹의 조직이 아닌 재판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호룡(2015), 앞의 책, 262쪽).
- 18 「湖南 濟州道 兩事件 同志出獄」, 《흑색신문》 제26호 1934년 2월 28일자; 「B.T.P 事件以前의 在中國韓人無政府主義者運動概況 南華韓人青年聯盟」, 《흑색신문》 제23호, 1933년 12월 31일자.

백정기(鵬波 白貞基)	1896-1934	전북 정읍	국내, 중국 북경, 만주, 상해	3·1운동, 재중무련,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대회 한국인대표로 참석, 재공 산무련, 한총 등	육삼정 의거 이후 피체, 옥사
유기석(가명: 柳架, 柳樹人)	1905-1980	서울		흥사단, 재공산무련	
원심창(元心昌, 元勳)	1906-1971	경기 평택	일본	흑우회, 흑풍회, 흑우연 맹 조직	육삼정 의거 이후 옥고
박기성(朴基成, 가명: 李守鉉)	1907-1991	충북 진천	일본	자유청년연맹	광복군 5지대에 편 입, 한국청년전지 공작대
엄형순(嚴亨淳, 舜奉)	1906-1938	경북 영양	중국 만주	재만무련, 한총	이용로 암살사건 이후 사형
이규창(李圭昌, 圭虎)	1913-2005	만주 삼원보	중국 만주, 북경, 상해		이용로 암살사건 이후 옥고
이용준(李容俊, 가명: 千理芳)	1907-1946	충북	국내, 중국	3·1운동, 신간회	
유기문(柳基文)	1910-?	서울(황해 도 금천)	중국 북경		유기석의 동생
이강훈(靑雷 李康勳)	1903-2003	강원 김화	국내, 중국 만주, 상해	3·1운동, 신민부, 임시정 부, 재만무련, 한총	육삼정 의거 이후 옥고
김성수(芝江 金聖 壽, 가명: 朱烈)	1900-1969	경남 밀양	중국	의열단	
오면직(吳冕植, 가명: 楊汝舟)	1894-1938	황해 안악	국내, 중국 상해	3·1운동, 임시정부	상해 일본영사관 습 격활동 중 피체 사형
이하유(李何有, 원명: 李鍾鳳)	1909-1950	경기 양주	국내, 일본	광주학생운동, 흑우연맹	광복군, 한국청년 전지공작대
이달(李達)	1910-1942	충북	중국 만주	재만무련, 한총	광복군 제1지대, 조선의용대, 민족 혁명당
나월환(羅月煥)	1912-1942	전남 나주	일본	흑우연맹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김광주(金光洲)	1910-1973	경기 수원			문인(文人)활동

기타: 정해리(鄭海理, 1897-?, 경기 인천), 박철동(朴喆東, 1916-?, 충북), 김현수(가명: 朱新華, ?-?, 충남 논산), 허열추(가명: 鄭致和, 1902-?, 평북 의주), 박제채(朴濟彩, 1909-?, 신한촌(러시아), 현영섭(玄永燮, 1907-?, 서울), 안동민(安東暉), 유산방(劉山房), 김병학(1904-?), 이형래(1915-?), 이중현(李中鉉), 임소선(林少山), 장도선(張道善), 심용철(沈容澈), 안우생(安于生, 安宇生)

남화연맹 구성원들의 명단과 활동사항들을 살펴보면 남화연맹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첫째, 남화연맹은 이전에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다수 가입했다. 이회영, 유자명, 이강훈, 오면직은 한 때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몸담아 독립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고 정현섭, 백정기, 이용준, 이강훈, 오면직은 3·1운동에, 이하유는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 유기석은 흥사단, 김성수는 의열단의 일원이었던 이력이 있다. 둘째, 남화연맹원들의 가입 이전 활동지는 중국 북경, 만주, 일본 등 다양했다. 그들은 이전의 활동지와는 관계 없이 상해로 모여들며 남화연맹에 소속하여 재일본,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합작단체를 이루었던 것이다. 재만주 아나키스트 엄형순은 재일본 아나키스트 핵심인원이었던 원심창의 권유로 남화연맹에 가입했다.²⁰ 이하유는 1932년 일본에서 원심창의 아나키즘 선전으로 흑우연맹원이 되었다가 이후 오면직의 추천으로 상해로 이동하여 남화연맹에서 활동하였다.²¹ 이용준은 현영섭, 안우생, 이종봉에게 남화연맹의 목적을 설명하고 권유하여 가입시켰다.²² 이와 같이 남화연맹원들은 비(非)아나키스트 청년들에 대한 아나키즘 선전 및 가입권유에도 활발했다. 남화연맹원들이 서로를 유대하여 단체를 이룬 목적은 단연 아나키즘에

19 본 표는 박환이 정리한 남화연맹 구성원 명단 표에 필자가 내용과 항목들을 추가한 것이다. 표 작성을 위해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박환(2005), 앞의 책, 122-124쪽;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눈빛, 2005), 113-115쪽, 149-157쪽; 한상도, 「나월환의 독립운동 역정과 피살 사건의 파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0권(2015), 117쪽; 이동언, 「如山 李容俊의 生涯와 抗日獨立鬪爭」, 『국학연구』 제9권(2004), 110쪽;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체험과 그 문화적 그 문화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5권(2008), 95-125쪽;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431쪽 종합).

20 「嚴亨淳 李圭虎의 裁判記錄」(소하11년 刑控 제95호)(朝鮮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아나키즘運動史』(螢雪出版社, 1978), 352-354쪽에서 재인용).

21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눈빛, 2005), 156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47쪽.

기반을 둔 것이었는데 이하와 같은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 친애하는 민중 여러분, 하루 속히 일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우리들의 새사회를 건설하자. 민중의 불굴의 투지와 직접행동 그리고 총체적 쫓기로써 일거에 침략자를 몰아내자 조선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원한다면, 제국주의자, 권력자 그리고 야심가 도당을 이 땅에서 말끔히 쓸어내기 위해 투쟁하는 남화연맹대열로 집결하자. 억압하는 자들을 타도하고, 아나루코·콤문주의에 입각한 새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남화한인청년아나키스트연맹의 기치아래 모여라.²³

위의 내용은 남화연맹 선언문 내용 중 마지막 단락이다. 즉 남화연맹은 “아나루코·콤문주의(anarcho-communism)”라는 아나키즘 이론에 입각한 사회건설을 위한 단체였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해 당시의 식민지배 상태에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쫓기할 것을 호소했다.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남화연맹원들은 직접투쟁을 결의하며 결사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과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이었다.²⁴ 이하는 남화연맹

23 <南華韓人青年聯盟宣言文>(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343-349쪽 부록).

24 이강훈은 흑색공포단의 존재에 관하여 “이런 단체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는 것”이었고 거사의 선후책을 의논하는 자리에서 적에게 공포심을 주기위해 유자명의 제의에 따라 임박해서 결정한 명칭이라고 흑색공포단의 존재를 부인했다(이강훈(1994), 앞의 책, 169쪽). 이용준은 재판과정에서 “흑색공포단은 남화한인청년연맹 실행부의 별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조선총독부는 “흑색공포단은 남화한인청년연맹과 별개의 결사”라고 규정하였고(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운동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46-847쪽), 《흑색신문》 또한 제23호에서 흑색공포단은 남화연맹과 밀접하나 별개의 단체로 소개했다(『B.T.P의 組織內容』, 《흑색신문》 제23호, 1933년 12월 31일자). 본고에서는 당시의 사료기록들을 근거로 흑색공포단은 별개 단체로서 서술하되 남화연맹원 다수가 흑색공포단에서 활동했던 까닭으로 흑색공포단의 활동을 남화연맹원들의 활동으로써 같이 다룰 것이다.

의 <강령>이다.

<강령>

1. 우리(我等)의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인에 기(基)한다.
2. 일체의 정치적 운동과 노동조합지상운동(勞動組合至上運動)을 부인(否認)한다.
3.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
4. 위도덕적(僞道德的) 제도와 가족제도를 부인한다.
5. 우리는 절대 자유평등의 이상적 신사회(新社會)를 건설한다.²⁵

요컨대 남화연맹은 국내, 중국, 일본 각 등지에서 민족운동과 아나키즘 운동을 펼쳤던 청년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였다. 일제의 본격적인 대륙침략으로 인해 만주에서의 항일운동 상황악화와 만주사변과 같은 사건은 남화연맹을 재편성·활성화시켰고 남화연맹은 1930년대 재중국, 재만주,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집합단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후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으로 이어지는 단체들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항일무력투쟁을 수반했다.

25 「在上海南華韓人青年同盟の綱領規約及宣言」, 『思想彙報 5』(고등법원 검사부 사상부, 1935), 112쪽(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제24권, 2010, 92쪽에서 재인용).

Ⅲ.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념

1. 사상적 기원

이 장에서는 남화연맹의 이념적 특징을 공산주의, 자본주의, 국가와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과 견해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20년대 초반 한국인들에 소개된 아나키즘은 상호부조론을 중심으로 하는 아나코코뮤니즘(anarcho-communism)이 주류를 형성하였다.²⁶ 상호부조론은 재중국·재일본 아나키스트들이 추종했던 사상이 크로포트킨의 이론이었다. 재중국·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 모두 아나코코뮤니즘의 영향을 주로 받았는데,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경우 더욱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²⁷ 남화연맹의 〈선언문〉도 “아나루코·콤문주의에 입각한 새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남화한인청년아나키스트연맹의 기치아래 모여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²⁸ 아나루코·콤문주의는 아나코코뮤니즘과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이다.

“콤문”과 “아나코코뮤니즘”은 크로포트킨이 주로 주장했던 이론이다. 이 이론에는 반(反)국가주의와 자유·평등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크로포트킨은 저서 『상호부조론(相互扶助論)』에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26 이호룡(2001), 앞의 책, 107쪽.

27 이호룡(2001), 위의 책, 130쪽, 140쪽; 이호룡,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87쪽. 신채호는 1924년 가을부터 아나키즘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크로포트킨을 석가, 공자와 함께 인류의 5대 사상가로 꼽았으며(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332쪽), 원심창이 이용준에게 아나키즘 운동을 권유할 때도 크로포트킨 저서 『청년에게 호소함』을 소개했다(이동언, 「如山李容俊의生涯와抗日獨立鬪爭」, 『국학연구』 제9권(2004), 112쪽). 유자명 또한 “무정부주의에 관하여 흥미를 갖게 되어서 무정부주의에 관한 서적을 보기 시작하였다”며 크로포트킨의 저작들을 설명했다(유자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71-75쪽).

28 <南華韓人青年聯盟宣言文>(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343-349쪽 부록).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무작정 추구하는 것만이 근대생활의 특징이 아니며, 가난한 아이들의 경우를 예시로 들며 “긴밀한 결합”이 여러 가지 불행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준다고 서술했다.²⁹ 아울러 “상호부조의 실천을 최고도로 발달시킨 종(種)의 동물이 언제나 반드시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미래의 진보가 약속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완만한 집합에 기초하여 단 하나의 결합의 유대가 되려고 하는 국가는, 그 목적(상호지지)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국가를 상호부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했다.³⁰ 크로포트킨에 있어 국가는 특권과 권력으로 대표되며 민중을 착취하는 기구였다. 그는 “국가에 의해 강화되어 온 특권이 소실할 때 국가도 또한 그 존재이유를 상실할 것이다. 일단 인간관계가 착취자 대 피착취자의 관계이기를 그친다면 전혀 새로운 사회집단형태가 생길 것”³¹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크로포트킨의 민족에 관한 입장은 국가와는 별개였던 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강자에 의한 약자의 통치가 정당화되는 사회진화론을 반대하며 각 민족이 자치와 자결의 원리에 의하여 생활할 것을 지향했다.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폴란드의 해방을 지지했다.³²

아울러 아나키즘의 이상적 사회는 “자유”가 보존되는 사회이다.

우리가 마음 속에 그리는 사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거기서는 각성각간(各成各間)의 관계가 과거의 억압과 횡포의 유산인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지를 않고 또한 일체의 권력자(그 권력이 선거에 의하여 얻어졌건 상속권에 의하여

29 Peter Kropotkin 저, 河岐洛 역, 『相互扶助論』(형설출판사, 1983), 249-250쪽.

30 Peter Kropotkin 저(1983), 위의 책, 258-259쪽.

31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1973), 앞의 책, 102-103쪽.

32 하승우, 「항일운동에서 ‘구성된’ 아나코-코문주의와 아나키즘 해석경향에 대한 재고찰: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7권 제1호(2008), 11쪽.

언어졌던 간에)에 의해서 규제되는 일이 없이, 오로지 자유로 성립한 상호의 합의에 의하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유로 승인된 습관이나 풍습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런 사회이다.³³

크로포트킨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적 새 사회는 민중이 스스로 사회의 재건에 착수해야 이를 수 있다. 또한 “위로부터의 명령이나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소간에 광범한 코뮌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건설적 계몽적 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 첫째로 만인(萬人)에게 먹을 것과 집을 주도록 수배하고, 다음으로 만인의 식량, 주택, 의복의 공급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³⁴ 그러나 소비에트(Soviet) 사회와는 다르게 아나코코뮤니즘의 사회는 각 개인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개성을 발전시키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통합되는 사회이다.³⁵

더불어 자유뿐 아니라 평등도 필수적으로 실현해야 할 이상적 가치였다. 크로포트킨은 『빵의 쟁취』에서 “아나키는 코뮌주의로 통하며, 코뮌주의는 아나키로 통한다. 양자는 다 같이 현대사회의 지배적 경향인 평등의 추구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밝히며 아나키즘과 코뮌주의가 상호보완되어 완전한 자유의 도래를 꿈꾸었다.³⁶ 따라서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사상은 권력부정, 국가부정, 자유와 평등이라는 절대적 가치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혁명과정에서 만인에게 의식주에 필요요소들을 공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은 공산주의의 무상분배 원칙과도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33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1973), 앞의 책, 65쪽.

34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1973), 위의 책, 137쪽.

35 이호룡(2008), 앞의 책, 92쪽.

36 크로포트킨, 《빵의 쟁취》(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이 구파 백정기 의사』(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04에서 재인용).

2. 반(反)자본주의와 반(反)공산주의

크로포트킨의 아나코코뮤니즘을 연맹의 이념으로 채택했던 남화연맹은 반자본주의와 반공산주의의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지만 남화연맹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양 체제를 모두 비판했다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다.

크로포트킨은 자본주의 사회를 착취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의 권력체로 보았다. “미래의 사회는 금일의 통치기구와 자본주의적 착취가 자취를 감추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에 자리를 비켜주어야”³⁷한다고 주장했다. 남화연맹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이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는 남화연맹이 발간한 기관지 《남화통신》과 흑우연맹의 기관지 《흑색신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³⁸

《남화통신》 1936년 1호에서 백민(白民)이라는 필명의 기자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금전이 권력으로 되고, 「소비에트」에서는 노동이 권력으로 된다는 것이다”³⁹고 주장하며 양 체제의 결과가 “권력”임을 밝혔다. 《흑색신문》 제28호에는 식민지에 처한 한반도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37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1973), 앞의 책, 101쪽.

38 《흑색신문》은 재일본 아나키스트 단체 흑우연맹이 발행한 기관지이다. 그러나 재중국 아나키스트들 또한 흑색신문에 기사를 기고하였으며 기사 작성시 “上海”라고 지명을 작성자 필명과 함께 명시해 놓았다. 즉 흑색신문은 1930년대 초중반 재중국·재일본 아나키스트들이 아나키즘 사상과 활동을 공유했던 대표적인 기관지인 만큼 남화연맹원들의 사상연구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사료이다(김명섭, 「193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항일선전지 《흑색신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7권(2016), 272쪽; 이호룡(2001), 앞의 책, 215쪽).

39 白民, 「무정부주의란 어떠한 것인가」, 《남화통신》 1호, 1936년 1월호(박환(2005), 앞의 책, 173쪽에서 재인용).

..... 현재 일본이나 조선의 실례(實例)를 보더라도 전 인구 8할은 생활에 합당한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전인구가 생활에 충분한 소비를 하기에는 총생산액이 오히려 태반부족한 것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제도가 인간의 소비를 제지축소(制止縮少) 불능케하며 동시에 총생산력을 무리로 제지제한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는 까닭이다.⁴⁰

즉 당시 식민지 조선과 일본의 경제적 악조건과 불안 또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를 불신하는 태도에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 한편 남화연맹원들은 자본주의 불신과 허무주의에 입각한 자세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탈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화연맹은 신현상이 충남호서은행 탈취한 거금으로 파괴공작 준비비용을 보태기도 했으며⁴¹, 남화연맹 재편성 이전 정현섭, 김성수, 오면직 등이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서 일본조계에 있는 은행, 정실은호(正實銀號)에서 직원들을 위협하여 거금을 약탈했다.⁴² 이러한 행위들은 연맹활동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벌인 마지못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도 있으나, 아나키스트들은 “배고픈 자는 빵을 훔쳐서라도 먹을 권리가 있다.”는 신조⁴³와 함께 약탈론에 근거하여 상거래상의 신의라는 자본주의적 관념에 구애될 필요가 없었다.⁴⁴ 더불어 가진 자의 자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정당한 약탈이자 자본가에게서 강탈당한 것을 되찾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행동이라고 인식했던 측면에서도 기인하였다.⁴⁵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대체로 공산주의 또한 절대적으로 배척하며

40 「資本主義生産過剩는 飢餓強制에서 생긴다」, 《흑색신문》 제28호, 1934년 5월 30일자.

41 「湖南 濟州道 兩事件 同志出獄」, 《흑색신문》 제26호, 1934년 2월 28일자.

42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08-109쪽.

43 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이 구파 백정기 의사』(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04), 86쪽.

44 河岐洛(1994), 앞의 책, 70쪽.

45 이호룡(2015), 앞의 책, 284쪽.

강하게 비판하였다. 상술했듯이 크로포트킨이 주장한 아나키즘 분배의 원칙은 공산주의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현섭 또한 일제치하 한국인들이 아나키즘운동에 뛰어든 중요 원인을 두 가지로 보며 첫째는 일제에 대한 반항이며 둘째는 공산주의에 대한 동경이었다고 전하였다.⁴⁶ 그러나 남화연맹원들은 공산주의가 자유를 부정하면서 또 다른 지배권을 확립시킨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공산주의 이념에 맞섰다. 금월(今月)이라는 필명을 쓴 이달은 《흑색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투고하였다.

..... 자유, 행복의 신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은 학리(學理)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생명 그것이 명하는 당연한 욕구이다, 상식이다. 이 상식도 팽대(彭大)의 잘못(인용자)한 이론을 조직치 못하면 그 정당성을 인식치 못하는 지식계급은 민중에게 자본론과 레닌의 교리를 강제하며 그 교리 앞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교묘히 말살시키고 자가(自家)의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것이 맑스나 레닌, 부하린, 스탈린 또 각국 공당(共黨: 共產黨의 축약(인용자)의 본령(本領)이다. 이 공당의 목표는 무산독재이니 여기의 보수(報酬)를 받는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으로 생존을 계속하는데 만족할 것인가?⁴⁷

한편 이달은 공산주의의 유물론(唯物論) 또한 부정했다. “자유를 부정하는 유물론이다. 자유를 부정하는데 자유연합은 성립되지 못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와 아나키즘이 함께 상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⁴⁸ 이하유는 《남화통신》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신형 정치체제 프롤레타리아라고 비판했다. “표면상 내거는 구호로는 무산대중에게 행복을 주는 정치와 같이 해석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치인 이상 강권과 지배를 떠나서는 존재할

46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333쪽(정현섭 인터뷰 편).

47 「人間的欲求와 指導理念의 不必要」, 《흑색신문》 제33호, 1934년 10월 24일자.

48 「觀念이란 무엇인가?」, 《흑색신문》 제35호, 1935년 2월 1일자.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⁹ 이처럼 공산주의 체제를 새로운 지배체제로 보는 아나키스트의 논리는 크로포트킨이 “국가기구를 말짱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권력자를 바꿀뿐”이라고 사회주의를 해석한 것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⁵⁰

남화연맹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형성은 크로포트킨의 사상 외에도 공산주의 사회와 한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개인적 직간접 경험에서 기인되기도 했다. 1920년대 초반 북경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에로센코를 통해 볼셰비키 혁명 이후 레닌이 농민들과 반란군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나키즘적 사고에 더욱 빠져들었다. 초기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인 정현섭, 이회영, 신채호, 이을규가 에로센코와 교류하며 사상을 연구한 만큼 크로포트킨 뿐 아니라 에로센코의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도 그들의 반공산주의 논리에 영향을 끼쳤다.⁵¹ 이회영은 조소앙(趙素昂)에게서 볼셰비키 혁명(bolshevik revolution) 이후 러시아에 대한 실상을 전해 듣고 “그 냉혹 무자비한 독재정치가 과연 만민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는 균등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상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것처럼 자유가 없는 인간생활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⁵² 또한 하기락에 따르면 만주 내에는 세력다툼으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재만무정부주의자연맹과 한족총연합회의 파괴를 기도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⁵³ 재만무련 출신 남화연맹원들은 한인 공산주의자들과 직접적인 갈등구도에 놓였기에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대한 악감정이 생겼을

49 有何, 「정치운동의 오류」, 《남화통신》 1호, 1936년 1월호(박환(2005), 앞의 책, 177쪽에서 재인용).

50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1973) 앞의 책, 134쪽.

51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민음사, 1988), 327-328쪽.

52 이정규, 『友堂 李會榮 略傳』(乙酉文化社, 1987), 69-70쪽.

53 河岐洛(1994), 앞의 책, 125-127쪽.

것이다.

한편 남화연맹원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모두 제국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였다.

..... 한줌 소수 자본가에게 권력을 넘겨주어 민중이 또 다시 기아의 늪으로 빠져들기를 원함인가. 제국주의 영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후 소수 자본가들이 다수의 농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부르조아·데모크라시의 나라 미국을 이 땅위에 건설하여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또다시 임금의 족쇄를 채워 소수 자본가에게 이들의 육신을 헌납키 위해 우리가 귀중한 목숨을 바쳐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농민 노동자의 당임을 표방하고 일당독재체제를 수립한 후 권력투쟁을 일삼는 소수 우두머리들이 농민·노동자를 노예로 삼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뒤질세라. 법률, 감옥, 사형으로 혹독한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 공산 러시아와 같은 압당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가. 아니다. 단연코 아니다. 제국주의의 전횡과 지주의 횡포로부터 민중을 구하고 민중과 더불어 혹은 공장에서, 혹은 농촌에서 자유의 햇불을 높이 들고, 민중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평등과 우애를 구축해 왔던 수많은 혁명가와 민중의 참된 친구들을 학살, 투옥, 추방하고, 감히 독재권력을 누리려는 일당독재를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을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 54

따라서 남화연맹원들의 반자본주의, 반공산주의 입장은 아나키즘에 대한 학습과 일제 식민지 치하라는 근대 한반도의 상황과 맞물려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과 함께 자연적으로 고착된 부분이 컸다.

54 <南華韓人青年聯盟宣言文>(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344쪽 부록).

3. 국가관과 민족주의

앞서 서술했듯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사상은 반(反)국가주의의 요소를 담고 있다. 국가를 특권과 착취의 기관, 민중을 압박하는 기관으로 결부시켰다. 그러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경우 민족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간 많이 제기되었다. 즉 민족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주의자였으며, 아나키즘의 본령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민족국가 건설목표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⁵⁵ 또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소유한 채 현실타개적 방편으로 아나키즘적 테러활동인 직접행동을 선택했으며⁵⁶, 특히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급진적 민족주의 성향⁵⁷을 지니고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남화연맹원들을 포함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 민족주의자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남화연맹원들의 국가와 민족에 관한 아나키즘적 사고는 남화연맹의 이름으로 항일(抗日)활동을 펼치는데 어떠한 동력으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시각이 어떤 표출경로를 통해 나왔는지를 살핌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아래 글은 무명의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가 《흑색신문》에 기고한 기사의 내용이다.

55 하승우, 「항일운동에서 '구성된' 아나코-코문주의와 아나키즘 해석경향에 대한 재고찰: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7권 제1호(2008), 13쪽.

56 유자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xiv쪽.

57 구승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이학사, 2004), 207쪽.

..... 국가란 무엇이며, 조국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자본주의 국가이며 조국이란 자본주의 균벌의 조국이다. 민중생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민중의 사랑할 것은 민중의 생활이며 민중의 향토이다. 어찌서 자본가 균벌의 국가지배 착취의 조국을 사랑할 것인가. 모든 국가는 민중의 혈과 육을 박탈하는 데서만 그 존재를 보지(保持)하면서 있음으로 민중이 지배와 착취를 거부하면 금일의 국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국가명의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란 지배착취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피등의 애국주의 조국의식을 철저히 파괴하자⁵⁸

이를 통해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국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당시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는 일본이었으므로 비판대상이 일본이었던지 아니면 해방 이후 다시 찾게 될 조국의 존재를 거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흔히 독립운동이란 나라의 주권을 찾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식은 민족주의를 수용한 독립운동가들의 보편적 사유체계였다. 따라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항일목표가 독립이라는 목표의식은 동일했으면서도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들과 비교하여 그 성격에 있어 확연한 차이점과 지향성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녔던 민족주의와 민족에 대한 관념을 분석하여 추론해야만 한다.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관념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며 생성되었다. 1920년대 초반 국내외에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이회영은 이에 “회(會)·단(團)·당(黨)이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였고 알력과 마찰이” 심하다고 판단하며 독립운동의 근본적인 이론의 재검토를 요구했다.⁵⁹ 이강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관념적

58 在中同志寄稿, 「愛國運動의 正體」, 《흑색신문》 제34호, 1934년 12월 28일자.

59 이정규, 『友堂 李會榮 略傳』(乙酉文化社, 1987), 71쪽.

인 조직”, “국가의 법통모양으로 모양을 내었으니 피통치자는 없이 통치자만 있는 경우”⁶⁰라고 판단했다. 또한 “북간도에서 동경하던 바와는 달리 민족진영에 대한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임시정부 및 상해, 북간도, 시베리아, 북만주 등에 위치한 독립운동 단체들을 비판하였다. 한편 그는 자신이 “크로포트킨, 바쿠닌 등의 혁명논리에 흥미를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민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고 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⁶¹ 정현섭은 “상해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을 통합하여 질서를 잡고 새로운 기반을 닦기엔 임정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면서 “선배들을 찾아 항일운동에 대한 그분들의 계획이나 우리 행동에 대해 협조를 구해봤지만 너무나 나약했고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뿐이었다.”고 회고록에 기록했다.⁶²

1920년대 초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호파와 서북파,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갈등과 마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직면했을 당시로 국민대표회의가 조직되었던 시기였다.⁶³ 따라서 이 당시 임시정부의 실정을 겪거나 전해들은 이회영, 이강훈, 정현섭이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에 실망감 표현과 함께 기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에서 다른 방향을 제고하기에 이르렀을 수 있다.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193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했다. 당시 남화연맹원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반감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다. 민족주의운동은 “본래 강권을 배경하고 모순된 주장을 가진 불구자”이며,⁶⁴

60 이강훈(1994), 앞의 책, 86쪽.

61 이강훈(1994), 위의 책, 96-97쪽.

62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30-31쪽.

63 「國民代表會는 웨모히나」, 《독립신문》, 1921년 8월 15일자; 김영범 외,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국사편찬위원회, 2001), 141쪽.

64 今月(이달), 「在中朝鮮民族主義運動 客觀的解剖」, 《흑색신문》 제34호, 1934년 12월 28일자.

해방과 혁명을 위해 투쟁하던 선배들의 착오를 열거하자며 “조선이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을 망각하고 적 앞에서 기성국가의 정당정치처럼 사분오열하여 서로 자기의 세력 기반을 쌓고 각자가 영수라는 것에 급급”하다와 같이 비난하기도 했다.⁶⁵

한편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자 비판은 단지 그들이 민족운동진영에 실망한 것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아나키즘식의 사고에 입각하여 반국가주의와 더불어 권력을 지닌 민족운동단체의 존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신념이 비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식민지 혹은 약소민족의 해방은 결코 애국적 민족주의운동으로는 성취하지 못할 것은 이론과 사실이 증명한다. 이족(異族)의 통치와 민족적 모멸 내지 사회적 불평에 대한 민중의 반항성을 역용(逆用)하여 민족이니 독립국가이니 하는 미명(美名)으로 민중의 정의와 자유를 탈환하기 위한 정당한 반역운동을 마비시키고 자가(自家)의 지배적 착취적 권력확립을 기도(企圖)하는 민족주의 혁명은 벌써 민중의 거부 내지 배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족(異族)의 통치를 도궤(倒瀆)하고 자족(自族) 일부의 지배적 권력을 수립하는 것은 즉 민중의 착취적 주인의 지위를 교대하는 것뿐이고 민중 자신은 의연히 노예와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까닭이다.⁶⁶

위 기사의 핵심은 애국적 민족주의 운동이 민중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없으며, 민족주의 운동이란 다른 민족의 통치를 멸망시키더라도 자기 민족 일부만의 지배적 권력을 수립하여 착취민족의 지위를 교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화연맹원들이 추구하던 조국독립과 민족

65 何, 「우리 청년의 책임과 사명」, 《남화통신》 제2권 6월호, 1936년 6월호(박환(2005), 앞의 책, 185쪽에서 재인용).

66 「民族主義의 誤謬」, 《흑색신문》 제26호, 1934년 2월 28일자.

해방이란 어떠한 상태의 도래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이 목표했던 조국독립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을까? 이하유는 《남화통신》의 「정치운동의 오류」에서 “민족독립운동 그 자체의 정신이 고상하고 수단방법이 아무리 정당하다해도 이것이 정치운동인 이상 정치의 근본적 모순과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리사욕을 떠나 진실로 민족독립과 피압박 민중의 해방을 위해 운동하려 한다면 정치운동을 버리고 민중해방 운동인 사회혁명운동으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남화통신》 「吾等の語」에서는 구체적으로 민중해방운동이 무엇 인지를 나타내고 있다.⁶⁷

…… 우리들은 세계의 문제를 떠나 조선 문제만을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조선을 사회혁명의 한 단위로 생각하고 이곳을 활동무대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박멸을 도모함과 동시에 새로운 통치계급이 다시 착취의 싹을 조선민중의 내부에 심으려는 것을 배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만이 우리들의 친구이다. 진정한 사회혁명가만이 우리들과 합류할 수 있다. 우리들은 사회철학의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승리자는 오직 민중뿐이다. 영구한 승리자도 오직 민중이다. …… 쫓겨하라! 초토화된 고국을 탈환하고 2천 5백만의 노예를 일본 제국주의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⁶⁸

민중이란 지배자와 상반되는 피지배층을 뜻하며 “강권과 압박과 착취에 시달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의미한다.⁶⁹ 「우리 청년의 책임과 사명」

67 有何, 「정치운동의 오류」, 《남화통신》 1호, 1936년 1월호(박환(2005), 앞의 책, 179쪽에서 재인용).

68 「오등(吾等)의 어(語)」, 《남화통신》 1호, 1936년 1월호(박환(2005), 위의 책, 169-170쪽에서 재인용).

69 河岐洛(1994), 앞의 책, 41쪽.

에서는 또한 “먼저 투쟁의 공동목표(전 민족적)를 수립하고 전선내부가 일치단결하여 전 민족의 삶을 위해 희생적으로 최후까지 투쟁하고 일본제 국주의의 쇠사슬을 끊어 자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청년의 사명”이라고 역설했다.⁷⁰ 즉 독립이란 피압박 민중들의 승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주어지는 단계적 절차이며 국가의 주권 회복이 목표가 아닌 《남화한 인청년연맹선언문》에서 밝혔던 ‘아나루코·콤뮌주의에 입각한 새사회 건설’⁷¹이라는 목적과 같이 아나코코뮤니즘의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였다. 종합하자면 남화연맹원들과 일제시기 한국인 민족주의자들 모두 항일독립투쟁에 대하여 일제로부터 조선민족이 해방되고 승리하는 것에 동일한 목적의식을 두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해방 이후 국가의 건설과 통치기구의 수립을 원했는데 일제로 임시정부의 민족주의자들은 국가 운영체제를 민주공화제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임시정부와 의정원의 통치를 실시하고자 하였다.⁷² 이에 반해 남화연맹원들은 자민족에 의한 통치기구의 수립 역시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일부의 세력형성으로 간주하였다는 것에서 해방 이후의 사회건설에 대해 민족주의자들과 상이한 지향성을 가졌다.

남화연맹원들의 아나키즘 사상을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어서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국가주의와 필수적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관관계로써 해석할 경우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70 「우리 청년의 책임과 사명」, 《남화통신》 제2권 6월호(박환(2005), 앞의 책, 186쪽에서 재인용).

71 《南華韓人青年聯盟宣言文》(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349쪽 부록).

72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 공보』(국사편찬위원회, 2005), 3쪽.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서구 학자들의 주장들은, 민족주의는 “국가의 존재가 이미 상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속에서 대두”⁷³하며, “민족주의는 존재하든 갈망되어지든 간에 민족국가에 압도적 다수 국민의 최고의 충성심을 집중시킨다.”⁷⁴와 같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식민지배 하에서 근대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된 까닭에 민족주의를 국가가 아닌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ism)로 해석하기도 한다. 20세기 초반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nation과 nationalism을 번역한 것을 한국인들이 그대로 차용했고, 이민족의 지배에 맞서는 단일한 자민족집단을 위한 개념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⁷⁵ 자민족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민족주의는 정리하자면 “민족의식(national consciousness)”에서부터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은 타민족과 자민족을 구분하는 감정에서 분출되며 “문화적 동질감”을 갖는다.⁷⁶

남화연맹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어떠한 국가에도 충성하는 것을 배격하며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국가가 아닌 ‘자유연합사회’를 형성하기를 추구했다.⁷⁷ 즉 민족주의적 가치관보다는 아나키즘 본령의 반국가주의에 더욱 충실했다. 하지만 남화연맹원들은 한국인으로서 한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진 채 권력자가 아닌 일반 조선 민중의 해방과 승리를 염원했다. 즉 민족의식을 가졌다고는 볼 수 있다. 그것은 남화연맹원들 다수가 민족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에서도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73 어네스트 겔너(E.Geller)의 주장이다. 어네스트 겔너 저, 최한우 역,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9), 21쪽.

74 한스 콘(Hans Kohn)의 주장이다. E. 카멘카, 『민족주의』(청하, 1986), 32-33쪽.

75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0272>).

76 E. 카멘카(1986), 앞의 책, 45쪽.

77 「嚴亨淳·李圭虎의 판결문」, 1936년 刑控 제95호(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41쪽.

민족주의가 국가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때 남화연맹원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남화연맹원들도 그들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석했던 간에 민족주의 자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남화연맹원들을 포함한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민족의식을 소유한 채 아나코코뮤니즘 이상사회에 이르는 조선민중해방운동을 전개했지만 민족주의자들은 아니었다.

IV. 남화한인청년연맹의 활동

1. 아나키즘 선전활동

남화연맹은 조직 이래 아나키스트 선전활동과 항일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남화연맹은 유자명과 유기석에 의하여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조되었기에 사실상 남화연맹의 단체이름으로 활동들을 전개한 시기는 1937년까지라고 볼 수 있다.⁷⁸ 남화연맹은 결성 직후부터 연구·토론 등 각종 회의 개최 및 정보모집과 이론 구명(究明)에 전력하는 한편 일반 청소년에 대한 계몽운동에도 주력하였다. 선전활동을 위해서는 정해리, 정현섭, 유자명 등이 중국인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함께 인쇄소를 경영하였다.⁷⁹

남화연맹은 산하단체로 남화구락부(南華俱樂部)를 두고 《남화통신》을 발간했다.⁸⁰ 《남화통신》은 선전활동을 위한 기관지로서 1930년대 중반 남화연

78 이호룡(2008), 앞의 책, 177-178쪽.

79 上海 林友, 「在中國朝鮮 無政府主義運動 概況」, 《흑색신문》 제29호, 1934년 6월 3일자.

80 조선무정부주의운동편찬위원회, 『아나키즘운동史(前編)』(형설출판사, 1978), 340쪽.

맹원 다수가 항일테러 활동으로 피체되어 단체가 침체되자 1936년 1월에 창간호를 시작으로 발간된 기관지이다.⁸¹

그 밖의 선전활동으로 중요 기념일마다 격문을 적고 발송·배포하였다. 예컨대 1931년 3·1절에는 〈3·1절 기념선언〉을 살포, 같은 해 5월 1일 노동절에는 〈5월 1일: 해방을 위해서 투사의 힘을 발휘하자〉는 제목 하에 격문을 발포 및 일본, 대만, 상해, 북경 등 각 지역에 발송하였다. 국치일인 1931년 8월 20일에는 원심창, 유자명, 이용준, 박기성, 정해리, 이회영, 이규호가 남화연맹 명의로 〈8월 29일은 조선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된 날이다. 분발하여 적의 아성을 쳐부수자〉는 제목의 격문을 상해 거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남화연맹의 목적을 선전하였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이회영, 백정기, 유자명, 이용준, 박기성, 정해리, 이규호가 회합하며 유자명을 위시로 〈전쟁 반대, 일본제국주의 타도, 아나키스트 혁명을 성공시키자〉는 뼈라를 각 지역 아나키스트 동지들에게 배포하기도 하였다.⁸² 그 밖에도 공산주의자와 제국주의자를 대상으로 경고하는 성토문을 실기도 하였다. 그 대상은 독립운동가 및 혁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자와 공산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청년단체였으며, 일본제국주의 타도와 밀정의 근절을 절규하는 격문도 적었다.⁸³

2. 항일직접행동

남화연맹에서는 실행부를 두어서 백정기, 김성수, 엄형순, 이달, 박기성, 이용준 등의 연맹원들과 함께 직접행동에 분투하였다. 이러한 직접행동

81 이호룡(2008), 앞의 책, 145쪽.

82 이호룡(2015), 앞의 책, 268-269쪽.

83 金光洲, 「上海時節回想記(上)」, 『世代』 제3권 통권 29호, 1965년 12월, 260쪽.

실행부는 중국인 ана키스트 왕야치아오(王亞樵)와 화진스(華均實) 등이 정현섭, 이회영에게 항일공동선전을 제의함으로써 중국, 일본 동지들과 함께 항일구국연맹(抗日救國聯盟)을 조직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항일구국연맹은 선전, 연락, 행동, 기획, 재정 등 5개의 부서를 두고 기획부에서는 “1. 적군경관기관 및 수송기관의 조사 파괴, 적요인(敵要人)의 암살, 중국 친일분자의 숙청, 2. 중국 각지의 매일선전을 위한 문화기관의 동원 계획, 선전강(宣傳綱)의 조직, 3. 전 2항의 구체적 입안” 등의 계획을 추진했다. 항일구국연맹의 행동부는 세칭 ‘흑색공포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⁸⁴

흑색공포단은 남화연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조직되었으며 행동강령은 테러로 구분되는 직접행동과 파괴로써 한국인 ана키스트 뿐 아니라 중국인 화진스, 왕야치아오, 일본인 사노 이치로(佐野一郎)와 대만인 ана키스트 린청차이(林成材), 미국인 ана키스트 존슨(Johnson) 등이 단원으로 활동했던 국제적 ана키스트 단체였다. 흑색공포단 각국 ана키스트들은 자국에 대한 파괴공작을 위해서 자국인 동지규합, 정세연구(情勢研究) 및 선전을 추진하여 백경기가 조선인부, 화진스와 왕야치아오가 중국인부, 사노 이치로가 일본인 부를 맡는 등 각 국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부서를 나누었다. 조선인부에는 박기성, 김성수, 이달, 엄형순, 오면직 등 다수가 가입했다고 기록된 것을 토대로 남화연맹원들 다수가 흑색공포단의 직접행동에 참여했으며, 이러한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으로 이어지는 직접행동단체는 국제단체를 표방했음을 알 수 있다.⁸⁵

남화연맹원들의 직접행동은 일본관리 처단, 친일파 처단과 같은 테러형

84 上海 林友, 「在中國朝鮮 無政府主義運動 概況」, 《흑색신문》 제29호, 1934년 6월 3일자; 조선무정부주의운동편찬위원회, 『아나키즘運動史(前編)』(형설출판사, 1978), 340-341쪽 종합.

85 「豫審取調로 正體發露(一)」, 《동아일보》, 1933년 11월 11일자; 「B.T.P의 組織內容」, 《흑색신문》 제23호, 1933년 12월 31일자 종합.

태의 무력을 수반하며 전개되었다.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에서 실행한 대표적인 직접행동은 1933년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 공사 암살시도가 있고, 친일파 제거로는 1932년 이회영을 일제경찰에 밀고한 이규서(李圭瑞)와 연충렬(延忠烈)을 일제의 밀정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암살, 1933년 일제밀정 이종홍(李鐘洪) 교살, 일제밀정 옥관빈(玉觀彬) 사살, 옥관빈의 형 옥성빈 사살, 1935년 상해조선인거류민단 부회장 이용로(李容魯) 암살, 일제밀정 이태서(李泰瑞)사살 등이 있다.⁸⁶

이 중 반향이 컸던 아리요시 아키라 공사 암살시도사건, 옥관빈 사살사건, 이용로 암살 사건의 거사동기와 실행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나키즘 운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 강했다. 아리요시 공사 암살시도사건은 육삼정(六三亭)의거라고도 불린다. 1933년 3월 5일 백정기, 정현섭, 원심창, 엄형순, 이강훈, 이달, 박기성, 정해리, 오세민(가명) 등이 회합을 가지고 거사 주동자를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으로 정하였다. 아리요시를 암살대상으로 지목한 이유는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가 일제의 외교정책에 따라, 일본정부 아라키(荒木) 육군대신의 명에 의하여,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장 장제스(蔣介石)를 4천만 엔으로 매수하여 만주를 포기하도록 하고, 만주 및 열하에서 무저항주의를 취하려 했다는 까닭이었다. 남화연맹원들은 그렇게 된다면 아나키스트들이 운동의 근거를 잃게 되고, “황목(荒木)을 중심으로 한 독재세력과 장개석의 독재세력이 강화할 것은 필연이니 무정부주의자로 여차(如此)한 정부자의 기만을 양국(중국과 일본-인용자) 민중에 폭로하고 이 밀약을 와해함이 현하(現下)의 있어서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3인은 3월 17일 육삼정 연회에서 미리 준비한 폭탄을 교부받은 뒤 권총과 폭탄을 가지고 대기하던 도중 발각되어 거사실행 이전에

86 이호룡(2015), 앞의 책, 286-290쪽.

체포되었다.⁸⁷

옥관빈 암살사건은 정현섭이 임시정부의 김구와 안공근(安恭根)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살의 이유는 옥관빈이 한 제약회사를 차려놓고 일제관헌과 내통하여 거부가 된 후 일본군을 상대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과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비방하기를 서슴지 않았다는 죄목이다. 암살 실행요원은 엄형순과 오면직이었다.⁸⁸⁹

이용로의 암살을 위해서는 정현섭, 김성수, 엄형순, 이규호가 회합을 가졌다. “조선인 거류민회 회장 이용로는 일본총영사와 연락을 취하여 우리들 혁명가의 동정을 총영사관에 내보(內報)하며 “상해 재류 조선인을 모두 거류민회에 입회시켜 우리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축소시키고 있으므로 장래의 화근을 끊기 위하여 동인을 죽일 필요가 있다”고 모두 동의했다. 거사당일 이규호는 망을 보고 엄형순은 권총으로 이용로를 사사하고 두 명 다 발각되어 체포되었다.⁹⁰

따라서 남화연맹의 직접행동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반제국주의에 입각한

-
- 87 「吳冕植, 金昌根의 판결문」(1937년 刑控 제205호),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33-834쪽; 「B.T.P 團員은 왜 有吉明駐華公使暗殺을 決議하였는가」, 《흑색신문》 제23호, 1933년 12월 31일자 종합(“인용문은 《흑색신문》 제23호 기사에서 참조함).
- 88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55-156쪽; 조선무정부주의운동편찬위원회, 『아나키즘運動史(前編)』(형설출판사, 1978), 348-349쪽 종합.
- 89 그러나 김광재는 옥관빈 암살사건에 대해 옥관빈은 진짜 밀정이 아니라 독립운동 내부의 정쟁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밀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만을 신뢰하던 옥관빈이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이 독립자금을 강요하자 이를 거부한 까닭으로 암살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옥관빈이 암살되던 1933년은 김구가 윤봉길 의거 여파로 일제를 피해 가흥으로 피신하던 시기로 김구와 합작하여 옥관빈을 제거했다는 정현섭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김광재, 「上海시기 玉觀彬 밀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3권(2012), 42-70쪽 참조).
- 90 「嚴亨淳·李圭虎의 판결문」, 1936년 刑控 제95호(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39-840쪽.

항일투쟁과 아나키즘 운동이다.

3. 자유연대활동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남화연맹원들이 직접행동을 위해 가담했던 항일 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은 외국인 아나키스트들도 가입한 국제단체였다. 남화연맹원들의 직접행동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와 민족주의진영과의 연대활동이다. 두 형태의 연대활동은 모두 아나키즘 이념이 추구한 자유연합주의에서 기인된 활동이었다.

우선 항일구국연맹에서 남화연맹원들의 거사도모는 주로 중국인, 일본인 아나키스트들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자면, 중국인 아나키스트 화권스, 일본인 아나키스트 사노 이치로와 이용준이 함께 남경정부의 중국인 친일 외교부장 왕징웨이(王精衛) 저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32년 4월에는 백정기, 이용준, 유자명, 오면직, 이달, 화권스가 상해 홍구(虹口)공원에서 일본정부관료들에 폭탄을 투척하여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화권스가 폭탄 등의 무기와 자금준비를 맡았으나 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를 구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이 거사는 한인애국단의 윤봉길이 성사시켰다.⁹¹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활동으로 인해 거사를 그르친 경우도 있었다. 1933년 아리요시 공사 암살도모 당시 정현섭 등 남화연맹원들은 새로 알게 된 일본인 아나키스트 타마사키(오끼, 玉崎)가 일본영사관의 첩자인 줄 모르고 함께 거사를 도모하다가 거사의 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발각되었다.⁹²

91 이호룡(2015), 앞의 책, 309-311쪽.

남화연맹원들의 국제적 아나키스트 화합을 위한 단체결성은 1937년 남화연맹이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조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939년 중국 중경에서 조직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는 나일환, 이 하유, 박기성이 주요 간부로서 활동하며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이 연합해서 공동으로 항일의 기치를 걸고 공동의 적을 타도하자는 목적을 가졌다. 또한 정현섭 등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한·중합동유격대를 조직하여 활동했다.⁹³

한편 남화연맹원들은 임시정부 요인들을 포함한 민족주의자들, 민족운동진영과 합작항일투쟁을 하며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정보기관은 아리요시 공사 암살도모사건, 옥관빈 암살, 옥성빈 암살, 이용로 암살, 이태서 암살사건 등 1930년대 일어난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대부분의 테러활동을 김구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였다.⁹⁴ 당시 일제의 재판기록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정현섭의 “임시정부는 홍구 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었으므로 돈은 있었으나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었고, 남화연맹은 사람은 있으나 돈이 없었다. 그래서 임정의 재력과 남화연맹의 인력이 합작을 하기로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임시정부와 남화연맹원들 간의 합작항일운동이 있었으며 양 단체 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⁹⁵

사실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운동진영과의 연대추구는 임시정부에 국한을 두지 않았으며 중일전쟁 발발 후인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더욱 활발했다.

92 정화암 저,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42-145쪽.
 93 김명섭 외 12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연대』(경인문화사, 2015), 157쪽; 박환 (2005), 앞의 책, 187쪽, 195-196쪽 종합.
 94 <1935年の上海を中心とする朝鮮人の不穩策動狀況>, 《朝鮮獨立運動》2, 551-552쪽(이호 룡(2015), 앞의 책, 291쪽에서 재인용).
 95 정화암 저,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자유문고, 1992), 156쪽.

이때의 연합을 주로 민족전선결성(民族戰線結成), 민족전선운동이라고 칭한다. 1937년 10월 남화연맹은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조한 뒤 민족전선의 실행을 위해 여러 좌익계통 독립운동세력과 협상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1월 조선혁명자연맹은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운동자동맹 등과 몇 차례 회의 후에 한 달 뒤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조직하였다. 1938년 조선민족전선연맹은 한구(漢口)에서 군사조직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편성하고 김원봉(金元鳳)이 단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유자명이 전 시 대일선전공작을 담당했다. 이후 1940년 임시정부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자 나월환, 이하유, 박기성이 활약했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한국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되고, 1941년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어 군사적 통일전선을 이루었다.⁹⁶

민족전선결성에 대한 필요성 추구와 행동강령은 1936년 이후 《남화통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1936년 12월호 「민족전선결성을 추구한다」에서 기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우리들이 현금(現今)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평등을 탈환하고 만인공영의 이상적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선 최대의 적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운동도 전개할 수 없다. …… 분열, 대립, 또는 단독행동을 배척해서 주의(主義)파벌을 묻지 않고 적을 타도하기 위해 조선민중의 해방을 위해 민족전선을 결성하는 것을 제창해왔다. 그것은 우리의 창견은 아니라 어떠한 혁명기에도 공동의 적 앞에서는 일치단결해서 싸워온 것이므로 현금 누구도 이것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⁹⁷

96 김명섭 외 12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연대』(경인문화사, 2015), 154-158쪽.

97 「民族戰線結成を促す(全譯)」, 《南華通訊》(社會問題資料叢書, 『思想情勢視察報告集(基の二)』(中西利雄, 1976), 491쪽에서 재인용).

아울러 1936년 11월호 「민족전선의 가능성」에서 기자는 “조선혁명에 있어서 그 투쟁 대상이 동일한 한 어떤 당파를 불문하고 민족전선을 거부할 어떤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각기 자파의 근본주장과 태도를 말살하지 않는 한 민족전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⁹⁸ 민족전선결성운동에 나서며 남화연맹이 작성한 「민족전선의 행동강령초안」 중 민족전선에 관한 구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 3. 민족전선은 이를 구성하는 각 단체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지만, 혁명공작에서의 보조의 일치와 국호의 통일을 요구한다. 4. 민족전선은 대다수의 근로민중을 기본 대오로 한다. 5. 민족전선은 현재 반일투쟁시기의 전략적 결합에만 그치지 않고 장래의 건설시기에 있어서도 서로 협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17. 동아(東亞)의 일체 항일세력과 연합한다.⁹⁹

남화연맹원들이 아나키즘의 반국가, 반권력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주의자들을 배척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의 민족전선추구 행보에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보에 관하여 이호룡은 1930년대 후반 재중국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국가·정부관이 아나키즘 본령에서 점차 이탈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¹⁰⁰ 그러나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전선운동은 중일전쟁 이후 아나키즘 본령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만은 아니었다.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민족전선에 대한 입장에는 그들의 자유연합주의가 반영되었으며, 자유연합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아나키즘 창시자들이 내세운 자유연합 논리와 상호부조론의 관계를 우선 파악해야

98 社會問題資料叢書(1976), 위의 책, 483쪽; 박환(2005), 앞의 책, 147쪽, 154쪽 종합.

99 「民族戰線の行動綱領草案」; 社會問題資料叢書(1976), 위의 책, 494-495쪽.

100 이호룡(2015), 앞의 책, 392쪽.

한다. 조지 우드코크(George Woodcock)에 따르면 “아나키즘의 독특한 유동성은 조직에 대한 그 태도 속에 반영”되고 있으며 모든 아나키스트들이 조직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조직에 인위적인 영속성을 붙여주려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19세기 서구 아나키스트들은 “자유로운 일시적 집단과 연합의 형태”를 선택했다. 상호부조론은 크로포트킨 이전에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이 제창한 것으로 프루동은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들과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엄격히 옹호하면서도 그것을 연합(association)의 견지(見地)에서 바라보았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개인과 소집단의 하나의 형(型)에 기초를 두고 각 개인에게 자기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보증하는 교환과 상호신용의 계약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콤포문과 노동자협동조합의 대연합으로서 구상”이었다. 1870년대 후반 크로포트킨과 그의 동지들인 아나르코·콤문주의자(anarcho communists)들은 이러한 이론을 진전시켰다.¹⁰¹

1920-1930년대 한국인 아나키스트들도 상호부조론의 영향으로 자유연합사회의 건설을 궁극적 이상적 목표로 삼았다.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의 첫 번째 강령은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 조직원리에 기초할 것”이었으며¹⁰², 남화연맹의 강령에서도 ‘1. 우리의 일체 조직은 자유연합의 원인에 기(基)한다.’라는 지침이 있다.¹⁰³ 이용로 암살사건의 공판에서 이규호와 엄형순이 각각 주장한 아나키즘 혁명의 목적 또한 “무산계급을 압박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제도를 타도하고 반민평등의 무정부 즉 자유연합사회

101 조지·우드코크 저, 하기락 역, 『아나키즘: 自由人의 思想과 運動의 歷史』(형설출판사, 1962), 21-24쪽.

102 김명섭 외 12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연대』(경인문화사, 2015), 54쪽.

103 「在上海南華韓人青年同盟의 綱領規約及宣言」, 『思想彙報 5』(고등법원 검사부 사상부, 1935), 112쪽(성주현, 『아나키스트 원심창과 육삼정 의열투쟁』, 『승실사학』 제24권, 2010, 92쪽에서 재인용).

를 창설”, “조선을 일본제국의 기반으로부터 이탈시켜 정치적으로는 지배 계급을 타도하여 민중의 자유의사 결합에 의하여 조직된 자유연합의 의사로써 통제하고 경제적으로는 일체의 재산을 민중의 공유로 함”¹⁰⁴과 같다.

한편 민족주의자와의 연대는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강령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강훈, 이달, 엄형순 등이 가입했던 재만무련에서는 ‘2.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각인은 자주적 창의와 상호부조적 자유협작으로써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한다’를 기본강령으로, ‘6. 우리는 항일독립전선에서 민족주의자들과 우군으로서 협조하고 협동작전에서 의무를 수행한다’를 당면강령으로 내세웠다.¹⁰⁵

그렇다면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전선운동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지를 수 있을까?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전선론에 대하여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민족을 해방해야 한다는 과제가 아나키즘 사회 건설 이전에 이루어야 할 선결조건이었기에 한국인 아나키스트들과 항일민족주의자세력의 연대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 있다. 민족전선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이라는 민족적 명제에서 입각했으며, 아나키즘의 원리에서 보더라도 ‘자유연합’ 조직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당파와 계급을 단결시킨 채 광범위한 대중적 기초 위에서 결성된 민족전선은 ‘혁명세력의 연합’이기 때문이다.¹⁰⁶ 본고 또한 사료적 근거들을 참고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며 남화연맹원들의 민족전선운동은 아나키즘 본령에서 이탈한 행동이 아닌 아나키즘 혁명의 목적을 위해 조직들의 연합을 허용하는 상호부조론에 입각한 혁명방법 중 하나였다고 본다.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민족주의자

104 「嚴亨淳·李圭虎의 판결문」, 1936년 刑控 제95호(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841쪽.

105 河岐洛(1994), 앞의 책, 108-109쪽.

106 김명섭 외 12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연대』(경인문화사, 2015), 112-116쪽.

들은 아니었지만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유연합사회 건설 이전에 민족해방을 우선적으로 목표로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민족운동조직들과의 일시적 연합을 허용했다.

요컨대 본고는 국제단체로서의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의 활약, 민족운동단체와의 연합인 민족전선결성이 모두 자유연합주의라는 이념의 실현이었다고 본다.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활동과 민족전선결성을 하도록 이끈 공동된 목적의식은 항일(抗日), 반제국주의에 있었다.

V. 맺음말

1930년 재중국 아나키스트 단체 남화연맹은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었으며, 중국, 일본, 국내 각지에서 아나키즘 운동 및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청년 아나키스트들이 모인 한국인 아나키스트 집합 단체의 성격을 가졌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조선민중의 진정한 해방”과 아나코코뮤니즘에 입각한 새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하기를 결의하며, 항일 무력투쟁을 위한 단체로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을 또한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남화연맹 아나키스트들은 크로포트킨의 코뮤니즘(혹은 콤포주의 communism)과 상호부조론을 수용한 채 자유평등주의를 추구하고, 모든 권력체와 지배를 부정하기에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일제시기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 남화연맹원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제국주의와 동등하게 여기며 반감을 표현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공산주의 비판은 일제의 자본주의 정책에 대한 회의감, 러시아 혁명이후의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불신, 만주에서 한인 아나키스트들과 한인 공산주의자 사이의 마찰구도로 인한 영향으로도 형성되었다. 한편 남화연맹원들은 국가를 거부함과 동시에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자들도 배척했다. 독립운동의 파벌 다툼을 비판하며, 독립운동 단체가 정부의 형태 또는 권력체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을 ‘민중의 착취적 지위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 독립 이후 자국민의 지배적 권력 수립을 반대했다. 그러한 맥락으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했으나, 남화연맹원들은 아나키즘 혁명의 궁극적 목적을 피지배층인 일반 민중의 승리,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아나코코뮤니즘의 자유의 이상사회 즉 자유연합사회 건설에 두었다. 즉 남화연맹원들은 아나키즘의 반국가주의 이론에 충실하여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배격하였지만 조선민중의 해방과 승리를 염원하는 민족의식을 소유한 채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남화연맹원들은 아나키즘 이론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것에도 힘을 기울였다. 삼일절과 노동절 같은 각 중요 기념일에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아나키즘을 선전하는 격문을 발송하였다. 동시에 공산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을 경고하는 성토크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기관지 《남화통신》을 발행하여 아나키즘 선전에 주력했다. 한편 그들은 암살, 파괴와 같은 항일무력투쟁을 “직접행동”으로 칭하며 항일구국연맹, 흑색공포단에서 항일운동을 하였다. 직접행동은 반제국주의 논리에 따른 제국주의자와 친일파 척결 또한 아나키즘 운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남화연맹원들의 직접행동의 또 다른 특징은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와 민족주의진영과의 연대활동으로써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왕징웨이(王精衛) 저격시도, 홍구(虹口)공원 암살계획 등이 남화연맹원들이 외국인 아나키스트들과 합작하여 준비한 거사였으며, 1937년 남화연맹이 조선혁명자연맹으로 개조된 이후 조직된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한·중합동유격대의 활동은 한·중합작의 성격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더불어 민족주의자 및

민족운동진영과 합작항일투쟁을 위한 연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남화연맹과 임시정부가 합작한 대표적 거사가 1933년 옥관빈 암살이었다. 1936년 이후 남화연맹에서는 “민족전선결성”을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1937년 남화연맹원들은 좌익계통 독립운동세력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여 조선의용대도 편성하였다. 1940년대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조선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외국인 아나키스트들과의 연대 및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까지 이어진 남화연맹원들의 행보는 상호부조론에 입각하여 자유연합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집단들 간에 자유로운 일시적 연합을 허용한다는 아나키즘의 이론에서 이탈하지 않은 행보였다.

따라서 남화연맹은 아나키즘의 상호부조론의 이념을 표방한 한국인 아나키스트 행동단체였다. 아나키즘 본래 이념의 변용을 시키기보다는 아나코코뮤니즘의 자유연합사회의 도래를 목적으로 하여 조선민중의 해방을 위해 아나키즘 선전과 항일직접행동을 실천하였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남화통신》, 《독립신문》, 《동아일보》, 《흑색신문》, 《自由聯合新聞》, 《南華通信》.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헌법, 공보』. 국사편찬위원회, 200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11집> 의열투쟁사 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6.

社會問題資料叢書, 『思想情勢視察報告集(基の二)』. 中西利雄, 1976.

2. 회고록

金光洲, 「上海時節回想記(上)」. 『世代』 제3권 통권 29호, 1965년 12월.
유자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유자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9.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도서출판 제삼기획, 1994.
이규창, 『운명의 여신』. 클레버, 2004.
이정규, 『友堂 李會榮 略傳』. 乙酉文化社, 1987.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3. 단행본

구승희,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가 구파 백정기 의사』. 국민문화연구소 출판부, 2004.
김명섭 외 12인, 『류자명의 독립운동과 한·중연대』. 경인문화사, 2015.
김영범 외,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국사편찬위원회, 2001.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눈빛, 2005.
박환, 『식민지시대 한인아나키즘운동사』. 선인, 2005.
어네스트 켈너 저, 최한우 역, 『민족과 민족주의』.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9.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도서출판 제삼기획, 1994.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_____,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_____, 『한국의 아나키즘: 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朝鮮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아나키즘運動史』. 형설출판사, 1978.

조지 우드코크(George Woodcock) 저, 하기락 역, 『아나키즘: 自由人의 思想과 運動의 歷史』. 형설출판사, 1962.

크로포트킨 저, 이을규 역, 『現代科學과 아나키즘: 아나키즘의 道德』. 創文閣, 1973.

河岐洛, 『奪還』. 형설출판사, 1994.

E. 카멘카, 『민족주의』. 청하, 1986.

Peter Kropotkin 저, 河岐洛 역, 『相互扶助論』. 형설출판사, 1983.

4. 논문

김광재, 「上海시기 玉觀彬 밀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3권, 2012, 42-70쪽.

김명섭, 「1930년대 재일한인 아나키스트들의 항일선전지 《흑색신문》」. 『한국근현대사연구』 77권, 2016, 271-303쪽.

성주현, 「기획논문: 아나키스트 원심장과 육삼정 의열투쟁」. 『송실사학』 24권, 2010, 77-109쪽.

이동언, 「如山 李容俊의 生涯와 抗日獨立鬪爭」. 『국학연구』 9권, 2004, 107-129쪽.

최병우, 「김광주의 상해 체험과 그 문학적 형상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25권, 2008, 95-125쪽.

하승우, 「항일운동에서 ‘구성된’ 아나코-코문주의와 아나키즘 해석경향에 대한 재고찰: 크로포트킨의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7권 제1호, 2008, 5-25쪽.

한상도, 「나월환의 독립운동 역정과 피살 사건의 파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권, 2015, 115-158쪽.

국문초록

본고는 1930년 중국 상해에서 조직된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의 결성단체인 남화한인청년연맹의 이념, 활동과 항일독립운동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국내, 중국, 일본 각지에서 민족운동과 아나키즘 운동에 참여했던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남화연맹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하였다. 일본제국주의를 조선에서 몰아내고 아나코코뮤니즘에 입각한 자유연합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기를 결의하며 항일무력투쟁을 위한 항일구국연맹과 흑색공포단도 창당했다. 남화연맹원들은 반국가·반권력의 아나키즘식 입장을 토대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더불어 민족주의를 지양하며 독립운동 단체의 권력조직 성립과 민족독립이후 자국민의 지배적인 권력수립을 '민중의 착취적 지위를 교체'로써 인식하는 반면 피압박 조선민중의 해방과 승리를 염원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즉 남화연맹원들은 민족주의에는 반대했지만 민족의식은 소유했다. 남화연맹원들은 제국주의자 척결, 아나키즘 운동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항일무력투쟁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를 직접행동이라고 칭했다. 외국인 아나키스트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한 국제적 아나키스트 연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기타 민족운동진영과 합작항일투쟁을 진행한 민족전선결성은 남화연맹원들의 직접행동의 특징이었다. 이는 상호부조론에 입각한 자유연합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집단들 간에 자유로운 일시적 연합을 허용한다는 아나키즘의 이론에서 이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투고일 2019. 3. 19.

심사일 2019. 4. 12.

게재 확정일 2019. 5. 27.

주제어(keyword) 남화한인청년연맹(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아나키즘(Anarchism), 민족주의(Nationalism), 아나코코뮤니즘(anarcho-communism), 항일직접행동(anti-Japanese direct actions), 자유연합사회(free-association society), 민족전선결성(organization of forces with Korean nationalists)

Abstracts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the ideology and activities of the anti-Japanese anarchist group in the 1930s

Cha, Hyeon-ji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its ideology and activities as a par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anarchists that participated in both national and anarchists' movements came together in 1930 in Shanghai, China and established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To pursue a "true liberation of Korean people" and overcome an oppressive rule of the Japan Empire they also formed the Anti-Japanese alliance and the Black terrorists' party (B.T.P). Members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embraced Peter Kropotkin's theory of anarcho-communism and his concept of 'Mutual aid'. They criticized communism, capitalism, and imperialism, but stressed their anarchistic views towards concepts of anti-nation and power organizations. They also rejected nationalism and disapproved of the establishment of influential unions of Korean nationalists. They thought the both of establishment of powerful Korean nationalists' unions and setting up the predominant Koreans' organizations after liberation of Korea could be the "substituted exploitative status". However, they rather chose to work for the exploited classes of Korean people, and supported them to be liberated and achieve victories. In other words, the anarchists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opposed nationalism while developing a national conscious.

Members of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carried out numerous acts of terror, which they referred to as "direct actions" to secure stabilities of anarchists' movements and to destroy imperialists. Sometimes they cooperated with foreign like-minded fellows from China and Japan to prepare and execute a "direct action". Also for a purpose of anti-Japanese struggle they occasionally joined forces with Korean nationalists in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other nationalistic groups. These alliances were of a temporary nature, but the anarchists believed that they were necessary to achieve a goal of establishment of a free-association society', which would rely on the ideologies of Anarcho-communism. In other words, the Nam-Hwa Korean youth federation was the

anarchist-oriented organization which pursued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based on the anarchistic methodologies for liberation of the people for imperialism.